

5개 이상 약물 복용 노인...사망위험 25% 증가

10개 이상 약물 복용자 100만명 육박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5명은 5개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사망위험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2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한 다제약물(Polypharmacy) 복용자의 약물 처방현황과 기저질환 및 예후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서는 전 국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5개 이상의 약물을 동시에 처방받은 노인의 현황을 파악하고, 다제약물 처방이 입원 및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201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중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약물 처방이 270일 이상이고 입원이 없는 300만762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연구결과 5개 이상의 다제약물을 처방받은 다제약물군은 46.6%였으며, 이 가운데 47.0%는 부적절한 처방이 이뤄졌다. 반면 4개 이하의 약물을 처방받은 대조군의 부적절 처방률은 13.8%로 33.2%p 차이가 났다. 부적절 처방은 처방받은 약물에 노인이 피해야 할 약물 또는 특정질환(8개)이 동반된 경우 피해야 할 약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기저질환에 따른 다제약물 처방률을 살펴보면, 급성심근경색 동반 시가 80.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심부전증, 반신마비, 만성콩팥병

순이었다.

또한 다제약물군은 대조군에 비해 입원 및 사망 위험이 각각 18.0%, 25.0% 더 높았다. 다제약물군 중에서도 처방약물 개수가 증가할수록 입원 및 사망위험이 높아져 11개 이상 복용군은 2개 이하 복용군보다 입원 및 사망 위험이 각각 45.0%, 54.0%까지 증가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다제약물 복용의 부작용을 줄이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올바른 약물이 용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에는 만성질환 범위와 서비스 대상자를 13개 질환, 3000명으로 대폭 넓혔다. 서비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사-약사-공단이 협업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 9월부터 서울에서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당뇨병 등 1개 이상의 질환이 있고 10개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은 2018년 기준 95만명을 넘었으며,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강정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노인환자에서의 빈번한 다제약물 복용은 부적절 약물사용 빈도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입원 및 사망 위험 증가와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koreanurse.or.kr



통일군간호포럼 개최... 군간호 패러다임 전환

윤종필 국회의원 - 국군간호사관학교 공동주최

통일 대비 군간호의 역할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제3회 통일군간호포럼이 '새로운 남북관계와 군간호 패러다임의 전환' 주제로 8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윤종필 국회의원과 국군간호사관학교(학교장 권명옥 장군)가 공동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포럼에서는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 현황과 우리의 과제'(추무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 '북한의 오늘, 군간호와 보건의료의 내일'(김석향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남북교류에서 간호의 역할'(신나미 고려대 간호대학 교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연자들은 "남북은 보건의료제도, 보건의료 관련 법, 용어, 인력교육과정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통일간호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특히 남북한 간호분야가 얼마나 같고 다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북한의 모자보건과 영양문제

등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강준희 통일간호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각계 전문가들은 북한의 보건의료체계 및 간호교육 실태에 대한 최신 정보를 나누고, 통일 대비 군간호 비전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개회식에서는 윤종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통해 "통일군간호포럼을 통해 군간호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짐으로써 통일을 준비하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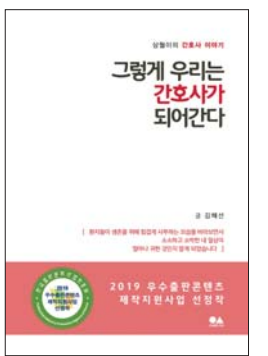
권명옥 국군간호사관학교장은 "군간호의 선제적 역할과 발전 방향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상진 국회의원, 김세연 국회의원, 김학용 국회의원, 박승주 국회의원, 이종명 국회의원, 임이자 국회의원, 전희경 국회의원, 조훈현 국회의원, 김중로 국회의원,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주혜진 기자 hjjo@

'그렇게 우리는 간호사가 되어간다'

김혜선 국립중앙의료원 간호사 지음



생사의 현장에서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간호사들에게 따뜻한 전해주고 싶은 마음을 담은 책이 발간됐다.

국립중앙의료원의 20년차 간호사인 김혜선 건강증진에방센터 차장은 병원에서의 하루하루를 일기처럼 써내려간 '그렇게 우리는 간호사가 되어간다'를 펴냈다.

이 책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2019년 우수출판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우수작에 선정됐다.

책에서는 이비인후과·안과·비뇨기과·내과병동, 외래, 심혈관조영실 등 저자의 일터와 그곳에서 만난 이야기들이 펼쳐진다. 대학생 할부터 현재까지 간호사로서 쌓아온 경험들과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일으켜주고 디딤돌이 많은 이들이 담겨 있다.

저자의 눈에는 환자와 함께 웃고 우는 모든 간호사들이 반짝이는 별이며,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별이다.

책은 △1부 나이팅게일을 꿈꾸다 △2부 그렇게 간호사가 되어간다 △3부 어느새 이만큼 왔구나 △4부 사람이 품음이 되는 곳, 나의 일터 △5부 빛나는 별들 그리고 소소한 이야기들로 구성됐다. 중간 중간에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수록했다.

저자는 프롤로그를 통해 "간호사로 살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환자들이 생존을 위해 힘겹게 사투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소

하고 소박한 내 일상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됐다"며 "누군가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일한다는 건, 어찌 보면 하늘이 준 축복이라 여겨진다"고 말했다.

또한 "누군가에게 온기를 전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먼저 따뜻한 마음이 충전돼야 한다"면서 "작은 간호사들의 고단함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김혜선 간호사는 겨울을 녹이는 따뜻한 삼월의 봄비림이라는 의미를 가진 필명 '삼월이'로 활동하고 있다.

간호사신문이 주최한 제37회 간호문학상 수기부문에서 '내 일상의 아름다운 풍경들'로 당선자에 선정된 바 있다. 당시 "간호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를 아름답게 회상한 글 솜씨와 그 사유의 깊이가 만만치 않다"는 평을 받았다. (유심/264쪽/15,000원)

주혜진 기자 hjjo@

가족 의미 변화 '혼인·혈연' → '생활·관계' 중심

임양·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부정적 시각 사라져

미성년 출산·양육에 대해선 부정적

가족의 의미가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에서 생활 및 관계 중심의 가족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정책 요구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가족의 의미가 혼인·혈연 중심에서 생계주거 공동체 또는 정서적 유대가 있는 친밀한 관계 등으로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이 젊을수록 법률혼 이외의 가족에 대한 수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66.3%가 혼인·

혈연과 무관하게 생계와 주거를 공유할 경우 가족으로 인정하는 데 동의했다. 반드시 함께 살지 않아도 정서적 유대를 가지고 친밀한 관계이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8.5%가 동의했다.

국제결혼 및 이혼·재혼에 대해선 응답자의 10명 중 9명, 비혼독신에 대해선 10명 중 8명 정도가 가족으로 포용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성 65.1%, 남성 68.9%가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결혼하고 자녀를 가지 않는 것에는 응답자의 64.1%가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가지는 것에는 응답자의 과반이 넘는 50.6%가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반면 미성년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에는 응답자의 29.5%만이 수용할 수 있다고 답해 미성년의 출산·양육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선이 높게 나타났다.

본인 또는 자녀가 결혼하려는 상대방 가족의 형태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를 조사한 결과 임양,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재혼가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미혼부모가족, 비혼동거 가족에 대한 수용도는 절반 정도로 나타났다.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지원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부모가족 91.4%, 미혼부모가족 85.1%, 1인 가구 70.0% 순이었다.

최유주 기자 yjchoi@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프로그램 참여하기 공모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는 '2019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프로그램 참여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면 응모할 수 있다.

△주제 1='간호사 커리어' 자신 있게 시작 △주제 2= 다시, 간호사로 서다 △주제 3= 간호사를 가리키는 나로 한걸음 더 △주제 4= 흔들리던 마음이 확신으로 등 4개 주제로 진행된다.

1인 최대 2개 주제까지 응모 가능하며, 이메일(mjobinfo@koreanurse.or.kr)로 9월 3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당선작은 오는 10월 28일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제출서류 및 양식, 시상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홈페이지(www.RNjob.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를 2015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서는 의료법 제60조의3에 근거해 간호인력의 취업연계, 경력개발, 이직방지 지원과 구인기관 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현재 중앙센터를 비롯해 전국 9개 권역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진숙 기자 jslee@

보수교육 프로그램 정보안내	대한간호협회 KNA에듀센터 edu.kna.or.kr
----------------	---------------------------------

간호사신문		발행인·편집인 신 경 립 인쇄인 김 갑 기	
1976년 12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 서울대06368			
◇대한간호협회 (02)2260-2511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koreanurse.or.kr		◇간 호 사 신 문 (02)2260-2571 특자주소변경 (02)2260-2571 nursenews.co.kr	
시·도 간호사회		상 하 단 체	
서울시 (02) 853-5497	충청북도 (043) 272-1573	병원간호사회 (02) 2261-1711	
부산시 (051) 253-3824	충청남도 (041) 509-6348	보건간호사회 (02) 525-7318	
대구시 (053) 756-8485	전라북도 (063) 256-3390	보건진료소장회 (02) 2296-7677	
인천시 (032) 441-2825	전라남도 (061) 277-2292	보건교사회 (02) 527-3360	
광주시 (062) 227-7561	경상북도 (053) 743-2721	마취간호사회 (010-2061-6471)	
대전시 (042) 535-0739	경상남도 (055) 282-6006	보험심사간호사회 (02) 2263-1959	
울산시 (052) 258-2311	제주도 (064) 747-3811	산업간호사회 (02) 716-9030	
경기도 (031) 252-0351	군 진 (042) 878-4590	가정간호사회 (02) 2267-5688	
강원도 (033) 263-6417		정신간호사회 (02) 425-1271	
		노인간호사회 (052) 230-0735	

간호사를 위한 전문 교육원
간호교육연수원

간호학 전문 이기 때문에 특별하다!

NAVER **간호교육연수원** 검색

시작부터 합격까지 '간호교육연수원'은 다릅니다.

합격기원 응원 현장

- ✓ 임상생활 또는 현재생업을 병행할 수 있는 학습시스템 구축
- ✓ BMW (버스, 전철, 도보) 자투리 시간 활용을 위한 온라인 + 모바일 무상 제공
- ✓ 혼자서가 아닌 전문 학습 담임제에 의한 1:1 매니지먼트 서비스 제공

5단계 학습 시스템 제공

간호직공무원/ 보건진료직공무원/ 보건직공무원/ 보건복지부공무원 / 보건교사 / 공사 · 공단 취업 / RN-BSN / NCLEX-RN / 병원코디네이터

무료상담 080-529-0909, 080-913-0909

www.ganhohak.co.kr

품질경영시스템 인증기업

ANAB 환경경영시스템 인증기업

우수전자거래 인증기업

KOVA 벤처기업 인증기업

MAINBiz 경영혁신중소기업 메인비즈인증기업

원격평생교육 시설인증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중은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업